소형 SUV 왕좌 지킨다

기아 '더 뉴 셀토스' 출시

오토랜드 광주 생산
3년만에 디자인·성능 '업'
고급 디자인 '그래비티' 운영

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모델인 '더 뉴 셀토스'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과 차급을 뛰어 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국내에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열풍을 이끌어왔던 기아의 셀토스가 도심형 SUV 분위기를 한껏 품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새로 태어났다.

기아는 도시적인 스타일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소형 SUV '더 뉴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셀토스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1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으로, 국내 소형 SUV 인기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모델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형 SUV 판매 1위 왕좌를 굳건히 지켜왔다. 기아가 셀토스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다소 가라앉았던 소형 SUV 시장이 다시 부활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기아에 따르면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 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됐다.

외장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강인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원은 전장 4390㎜, 전폭 1800㎜, 전고 1600㎜, 축거 2630㎜다.

전면부는 웅장한 느낌의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를 가로지르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와이드한 형상의 LED프로젝션을 통해 한층 혁신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균형잡힌 실루엣과 볼륨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으며, 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가로로 길게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기아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요소를 한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도 운영한다.

그래비티 모델은 다크 메탈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및 로워 가니쉬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를 비롯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강인한 SUV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래비티는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하다.

실내는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통합형 컨트롤러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등 최첨단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내부 모습.

외장 색상은 플루톤 블루, 발레 그린 등 신규 컬러와 루프에 퓨전 블랙 색상을 적용한 2가지 색상 등 3종 등을 포함해 총 9종, 내장 색상은 블랙, 캐러멜, 미드나잇 그린(그래비티 전용) 등 총 3종 중 선택할 수 있다.

더 뉴 셀토스는 한층 우수한 성능을 갖춘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 2.0 가솔린 모델을 새로 추가하는 등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98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8㎞/ℓ로, 8단 자동변속기를 신규 장착해 고속 주행 시 정숙성과 변속 응답성이 향상됐다.

2.0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149마력(PS), 최대토크 18.3kgf·m, 복합연비 12.9㎞/ℓ로, 무단변속기(IVT)를 탑재해 부드러운 변속과 정숙한 주행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기아의 설명이다. 또 전면 유리창에 차음 글라스를 적용해 정숙성도 높였다.

기아는 더 뉴 셀토스에 동급 최초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애프터 블로우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빌트인 캠 ▲C타입 USB 충전 단자 등 운전자와 탑승객을 배려하는 신규 사양이 적용돼 편의성을 높였다.

더 뉴 셀토스는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1.6 가솔린 터보 모델(2.0 가솔린) ▲트렌디 2160만원(2062만원) ▲프레스티지 2459만원(2361만원) ▲시그니처 2651만원(2552만원) ▲그래비티 2685만원(2587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셀토스는 도시적 세련미를 강화하고 차급을 뛰어넘는 신기술 사양을 대폭 적용했다"라며 "하이엔드 감성을 한층 더 높인 상품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스포티지 명성 잇는다

기아는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스포티지'를 출시했다. 2023 스포티지는 경제성이 뛰어난 LPi 엔진 탑재 모델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기본화 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 '2023 스포티지' 출시

LPi 모델 추가 연비 걱정 '뚝'
고객 선호 편의사양 기본탑재

기아는 25일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스포티지의 연식변경 모델 '2023 스포티지'를 출시하고 26일부터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스포티지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며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국내 준중형 SUV 판매 1위' 자리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기아의 대표 베스트셀링 SUV 모델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2023 스포티지는 경제성이 뛰어난 LPi 엔진 탑재 모델을 선보이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사양을 기본화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주유소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하는 등 기름값이 크게 치솟는 상황에서 기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가 강점인 LPi 모델을 추가하는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스포티지는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에 이어 LPi 엔진까지 탑재해 전체 엔진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는 평가다.

스포티지 LPi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L2.0 엔진을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146마력(PS), 최대토크 19.5kgf·m, 복합연비 9.2㎞/ℓ의 성능을 갖췄다.

또 기아는 트림별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트림별로 트렌디에는 '하이패스 시스템', 프레스티지에는 'ECM 룸미러', 노블레스에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시그니처에는 '메탈 페달' 및 '도어 스커프'를 기본으로 적용했다. 이밖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후석 승객 알림을 전체 트림에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2023 스포티지의 판매가격은 2.0 LPi 모델이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트렌디 2538만원 ▲프레스티지 2714만원 ▲노블레스 2965만원 ▲시그니처 3284만원이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트렌디 2474만원 ▲프레스티지 2651만원(3163만원) ▲노블레스 2901만원(3330만원) ▲시그니처 3220만원(3649만원)으로, 2.0 디젤 모델은 ▲트렌디 2724만원 ▲프레스티지 2901만원 ▲노블레스 3151만원 ▲시그니처 3470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출시한 스포티지는 고객들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1년만에 국내 누적 판매 5만대를 돌파하며 침체됐던 준중형SUV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LPi엔진 탑재로 라인업을 확장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2023년형 모델 출시를 통해 스포티지 열풍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이탈리아 전기차 경주대회 우승 현대자동차의 '벨로스터 N ETCR'이 지난 22일부터 24일(현지시각)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순수 전기차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2 FIA ETCR 5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최고출력 500㎾의 전기모터와 65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경주차들이 출전했다. 〈현대차 제공〉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13개 기업 선정

100일간 육성 프로젝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STARTUP AUTOBAHN Korea) 참가 스타트업 13개를 최종 선정하고 100일간의 육성 프로그램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창업허브, 한국무역협회N15 등과 함께 진행되는 3번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에는 열전달 시스템 전문 기업 '망고슬래브㈜', 세계 최초 실물 기반 메타버스 라이브 콘텐츠 제작 기업 'LIVE K', 평면 디스플레이에 깊이감과 입체감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솔루션 기업 '모픽'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한화시스템이 새로운 파트너로 참여, 지난 프로젝트부터 함께 협력한 SK텔레콤, LG전자도 선정된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다양한 파트너 기관 및 기업의 참여로 지난해 선정된 11개 대비 2개 늘어난 총 13개 스타트업이 100일 육성 프로그램 참가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앞선 2번의 스타트업 아우토반 대비 육성 분야를 위성, 메타버스 등으로 더욱 확장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스타트업은 앞으로 100일간 육성 프로젝트에 돌입해 파트너 기업과 프로젝트 개발 협업과 육성 및 멘토링 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 또는 사업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까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아우토반은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가 2016년 설립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다. 스타트업에게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기회, 벤처 캐피탈(VC)을 통한 투자 유치 기회뿐만 아니라, 필요시 개발 공간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벤츠코리아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폭스바겐 제타에 신규 OE 공급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제타'(JETTA) 7세대 페이스 리프트 차량에 OE(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제타는 1979년 출시된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링 세단이다. 이번 7세대 페이스 리프트차량은 역동적인 비율과 넓은 실내공간,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MIB3, ADAS(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 새로운 기능성과 최신 기술이 적용된 파워트레인이 장착됐다.

현재 폭스바겐 제타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며, 장착되는 금호타이어는 조지아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공급된다.

제타에 공급되는 금호타이어의 솔루스(SOLUS) TA31(205/55R17, 205/60R16 TA31)은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컴포트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TA31은 저소음과 동급대비 마모성능, 주행성능을 강화시킨 제품으로 다양한 규격의 라인업을 갖췄으며 폭넓은 규격만큼 대형과 중형, 소형 차급별 특성을 고려해 인치 별로 각기 차별화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또 타이어 트레드는 최적의 블록 및 패턴 배열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했다. 블럭강성을 강화해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앙부에는 4개의 넓은 직선형 배수홈을 설계하고 딤플(Dimple)을 적용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성능을 향상시킨 것도 특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 美 신차 만족도 7개 차종 1위

현대차그룹이 미국 신차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차급별 최다 차종 1위를 달성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사가 발표한 '2022 상품성 만족도(APEAL) 조사'에서 총 7개 차종이 차급별 1위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7회째를 맞는 제이디파워사의 상품성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내외관 스타일, 주행성능, 인포테인먼트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감성적인 부분이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며,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상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차는 '팰리세이드'(877점)가 중대형 SUV 차급, '싼타크루즈'(844점)가 중형 픽업 차급에서 1위에 올랐다. 기아는 '카니발'(857점)이 미니밴 차급, 'EV6'(890점)가 소형 SUV 차급, 'K5'(877점)가 중형 차급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제네시스는 'G80'(878점)이 중대형 프리미엄 차급, 'GV70'(890점)이 소형 프리미엄 SUV 차급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